



3면

한미일 정상회담... 아야 반응 잇갈려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3년 8월 21일 월요일 (음 7월 6일) 제33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 ‘태권도의 중심! 변화하는 태권도!’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개최

20개국 3000여명 참가  
문화교류·폼새 세미나  
글로벌 태권도 캠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제16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태권도의 중심! 변화하는 태권도!’라는 슬로건으로 무주에서 2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세계 20개국 3,0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제16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조직위원회와 전북태권도협회가 주관하며,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과 대한태권도협회가 후원했다.

지난 17일 등록을 마친 선수와 관계자들은 18일 시범경연대회와 태권도 문화교류 페스타, 폼새 세미나에 참가하고 메타버스체험을 즐겼으며 19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폼새 경연과 글로벌 태권도 캠프 등의 주요행사를 비롯해 한어름밤의 콘서트 등 부대행사에도 참여했다.

19일 T1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해양 무주군의회의장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정강선 전북체육회장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내빈들이 참석했으며,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이병하 조직위원장과 전북태권도협회 원로들 이종갑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 세계 20개국의 선수들과 사범, 심판, 그리고 무주



제16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가 태권도의 중심! 변화하는 태권도! 라는 슬로건으로 무주에서 2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19일 T1 경기장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무주군청 제공)

군민 등 5,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는 인도의 배우 겸 영화감독, 주 의회의원, 정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참가자들이 함께해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의 의미를 더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태권도의 중심! 변화하는 태권도! 라는 슬로건을 품은 제16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가 문화와 역사, 스포츠와 교육을 포괄하는 태권도축제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5년의 시

간을 함께 하며 태권도인이라는 자긍심을 안겨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는 무도로서, 혹은 문화콘텐츠로서의 태권도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회라며 “여기에 여러분의 꿈과 젊음, 우정이 더해져 앞으로 태권도 발전을 도모하는 태권도축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립 추진에 들어간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글로벌 태권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세계 태권도인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응원해달라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20일에도 겨루기 경연을 비롯해 지도자간담회 등에 참여했으며 21일에는 폼새·겨루기 A매치에 이어 폐회식, 그리고 무주군 와인동굴을 비롯한 전주 한옥마을 등지로 문화 탐방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은 제16회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자원봉사 무주 인재를 홍보부스를 마련해 운영했으며 21일에는 문화탐방에 나선 참가자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난 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14주기 추도식에 김관영 도지사가 헌화 및 분향을 하고 있다.

### “평화·화합의 정신 계승”

김관영 도지사, 김대중 전 대통령 14주기 추도식 참석  
“DJ 정신 이어받아 새로운 전북 만들기 위해 혁신 앞장”

전북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추모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전 10시, 김대중평화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기현·이재명·여야 당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박지만·노재현·김현철·노건호씨 등 전직 대통령 자제가 참석했다.

추도식은 김성재 김대중평화센터 상임이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 계인사의 추모사와 유족인사가 이어졌고 이후 대통령 묘소로 이동해 헌화와 분향을 진행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추도식장에 도착해 유족과 인사를 나눈 뒤 헌화와 분향을 하며 참배했다.

김 지사는 “김 대통령께서 우리 사회에 새겨놓으신 평화와 화합 포용과 상생의 가치는 큰 가르침

이다. 그 숭고한 정신과 신념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더 나은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다”고 추모했다.

김 지사는 또 이날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혹독했던 정치 겨울 동안 강인한 덩굴풀 인동초를 잊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자신에게 닮았던 모든 시련은 스스로 감내하였고 국민에게 찾아온 모든 고난은 눈물로 아파하시던 대통령님의 모습을 되새긴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러나 의연하고 담대하게 이겨내겠다”고 강조한 뒤 “김 대통령께서 지난 1991년 노태우 대통령과의 역사적 담판으로 출발사기신 새만금 사업 그 꿈과 비전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재훈 기자

## 군산항·中 석도항 여객 운송 3년 7개월 만에 재개

한·중 국제여객선 군산발호, 오늘 석도항 출항 내일 군산항 입항

군산해수청, 국제여객선 입국 절차 등 점검 회의·접안시설 점검

군산항과 중국 석도항의 여객 운송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된다.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최창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화물만 운송 중이던 한·중 국제여객선(군

산발호)이 21일 석도항 출항부터 여객(100여명) 운송에 나선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21일 출항하는 군산발호는 오는 22일 군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해수청에 따르면 군산발호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여객 운송을 중단하고 화물만 운송해 왔다.

현재는 주 3회차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분간은 운항 횟수를 유지할 예정이다.

군산해수청은 장기간 중단됐던 국제여객선 입국 절차와 안전운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하

고, 국제여객선과 국제여객부두 접안 시설의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최창석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3개월 만에 여객 운송이 정상화되는 만큼, 항만 보안시설과 입·출국 절차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여객선사와 한·중 여객에게 기대한 만큼의 성과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터미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관 기자

전북도, 도내 유통 수산물 방사능 수거검사... 내달 27일까지

전북도가 유통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거검사를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방사능 수거검사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예고에 따라 도민 불안감 해소와 안전한 먹거리 확

보를 위해 당초 계획보다 2건 확대된 총 50건의 유통수산물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방사능에 민감도가 높은 어린이, 노인자들의 다소비 수산물과 단체급식에서 자주 사용하는 수산물 30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김재훈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